새책

▶윤리의 미래 "좋은 삶"(김인회 지음)=윤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삶으로서 윤리는 착하고 친절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다.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정의·공정만이 아니라 윤리도 필요하다며 정의의 동반자로서의 윤리, 윤리는 과연 무엇인가, 윤리의 역할, 윤리를 확보하고 발전시킬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준평. 1만5000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한비야·안토니우스 반 주트펀 지음)=2002년 아프카니스탄 북부 헤라트의 한 긴급구호 현장에서 동료로 만났고 멘토, 친구, 연인 관계를 거쳐 2017년에 결혼한 부부의 생활 에세이다. 60대인 두 사람은 '따로 또 같이' 결혼생활, 서로를 통해 알게 된 더 넓은 세계 등을 전한다. 푸른숲. 1만5000원.

▶바람이 분다, 걸어야겠다: 나를 성장시킨 길 위의 이야기(박지현 지음)=홀로 올레길을 걸으며 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 마음 속에 숨어있던 사색과 사유, 과거와의 조우와 미래에 대한 발견이 펼쳐진다. 군데군데 맑은 그림들이 곁들여 있다. 저자는 스물여섯 개 올레 코스를 완주하면 경험을 확장하는 스물여섯 권의 책을 읽는 셈이 된다고 했다. 마음의숲. 1만5000원.

▶가족의 탄생(김은선 지음)=캐나다에 사는 친구에게 갔다가 '초롬'이라는 고양이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동안 대문 앞에서,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를 차례차례 입양해 8남매가 되었고 터전도 옮겼다. 부부까지 합쳐 열 식구가 되었지만 '단풍', '밤비'가 먼저 떠났다. 그들을 기억하며 써나간 이야기다. 모비딕북스.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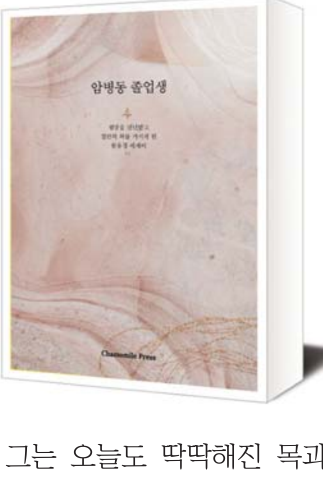
▶100세 시대를 신박하게 살아가는 36가지 방법(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지음)=이젠 70세도 청년, 마음부터 젊어지자는 메시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생애자산관리전략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30대 자산관리, 생애자산관리의 승부처인 40대, 노후준비 마지노선인 50대 등 연령대별, 직업별, 상품별 자산관리 방법 등을 전하고 있다. 굿인포메이션. 1만6000원.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들(기예르모 데쿠르헤즈 지음, 윤지원 옮김)=오늘은 이삿날. 주인공 로렌조는 엄마에게 "내 친구들은 이제 휴대전화 속에만 남아 있어요"라며 울적해한다. 낯선 동네, 낯선 집으로 이사한 로렌조는 방안 오래된 책상 밑 숨겨진 공간에서 우연히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거기엔 4편의 이야기들이 색종이를 오려 붙여 만든 그림과 함께 담겨있었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마법 같은 그림 일기를 읽으며 로렌조의 일상도 달라진다. 지양어린이. 1만7500원. 진선희기자

강하게 버티고 있는, 소중한 당신을 위해

한유경 에세이 '암병동 졸업생'

암환자에 대한 편견 겪으며 설암 발견·치료 과정 담담히



그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일이 가장 큰 업무라고 했다. 암환자가 직업이라고 말하는 한유경씨. 스물여덟의 어느날 그에게 4기 설암 선고가 내려졌다. 대학원 졸업과 원하던 직장 입사를 눈앞에 둔 시기였다. 그는 혀 절반을 절제한 후 근육으로 절반의 혀를 만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매일 아침 학생이 등교를 위해, 직장인이 출근을 위해 준비하듯 그는 암 환자로 출근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살아 있다.

'암병동 졸업생'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설암 4기라는 가늠하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쳤을 때 떠오른 생각들, 고난의 암병동 생활, 암병동에서 나오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풀어냈다.

38개 소주제로 엮은 '암병동 졸업생'은 초진, 발견에서 시작해 완치,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 '완치'라는 해피엔딩에 이르렀지만 울고 또 울기를 반복하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글을 써나갈 수 있었다는 고백에서 그 시간 동안 얼마만한 슬픔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처음 설암 진단이 나왔을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20대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암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암에 대한 정보와 사람들의 태도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그는 도망치거나 때론 불안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댔다.

암 환자는 몸이 약해 보호 받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여긴다. 불운한 끝을 기다리는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우울하다고 말하면 사람을 축축 처지게 하는 것 같고, 신나고 행복하다고 하면 환자의 신분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암 환자에 대한 이같은 편견도 그에겐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는 오늘도 딱딱해진 목과 부풀어 오른 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굳은 목 근육을 푸는 데 30분, 목소리를 안 아프게 낼 수 있도록 목을 푸는 데 30분, 말이 엉기지 않도록 혀를 푸는 데 30분을 쓴 뒤 비로소 양치를 하고 새로운 날을 맞는다.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암 환자로 살아남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는 다른 암병동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수고했고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강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도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캐모마일 프레스. 1만5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회가 정당화하는 차별의 폭력과 위험

김진석의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차별은 줄어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의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는 해결난망인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정책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저자는 좁은 의미의 차별과 넓은 의미의 차별을 구별했다. 좁은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쁜 의미의 차별로 차별금지법을 통해 일정 정도 개선 가능하고 규제할 수 있다. 후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러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심지어 생산되는 차별이다.

넓은 의미의 차별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해 다루기 힘들다. 학력, 소득, 자산 경쟁이나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은가. 특히 저자는 교육이 근대 이후 자유와 평등,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점점 학력 차별로 정당화하는 매우 기괴한 과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나 스펙을 쌓는 과정, 취업 준비, 시험 결과에 의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평가되는 일 자체가 폭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단순히 편법이나 불법이 개입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사회 제도가 얼마든지 폭력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경쟁의 과열은 다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든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 왔다.

이같은 차별을 없애는 일은 간단치 않다. 차별을 받는 소수 집단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따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우대조치를 하는데, 이 경우 소수에게 어떻게 그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느냐는 점이다. 소수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과 강자를 우대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저자는 우선 우리 안의 폭력과 위험을 마주보자고 했다.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개마고원. 2만원. 진선희기자

이 책 제주 고성기 시인 신작 시집

아이의 시선으로 가볍게 내려놓다

고희를 넘겨 첫 시집과 조응하는 '섬에 있어도 섬이 보입니다'를 펴낸 고성기 시인.

첫 시집이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1992)였고 10년 뒤엔 '가슴에 닿으면 현악기로 떠는 바다'(2002)를 냈다. 제주 4·3 와중인 1949년 어촌 마을인 한림에서 태어난 고성기 시인에게 바다는 일찍이 떠남과 돌아옴의 공간이었는지 모른다. 이번에도 바다가 있다. 신작 시집 '섬에 있어도 섬이 보입니다'로 제목에서 짐작하듯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에 조응한 창작집이다.

'섬에 있어도/눈 감으면/ 이리 환히 보이는 걸/ 내 젊은 날 왜 그렇게/ 떠나야만 보였을까/ 이맘쯤/ 사려니숲엔/ 복수초 노랗겠다'는 표제시의 한 구절에 폭풍 같았던 젊은 시절을 건너 어느덧 고희를 넘긴 오늘날 시인의 모습이 비친다. "집착과 욕심에서 멀어질수록" 섬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시인은 이제 섬을 떠나지 않는다.

젊은 날의 '섬을 떠나야…' 고희 넘긴 '섬에 있어도…' 쉽게 듣고 어렵게 쓴 시들

70여 년 세월 속에서 '우린 모두 섬이었구나'를 깨달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그 나이듦이 안온한 서정으로 드러나는 시편들을 펼쳐놓고 있다. "꾸미는 말과 기교가 사라지고 더러는 실체를 보게 됐다"는 시인의 말처럼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며 '어른의 진실'을 노래하고 있다.

그 진실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우연히 마주한 때수건 광고, 산책길에서 만난 제자를 통해 시가 탄생했다. 쉽게 듣고 어렵게 썼다는 시들은 또 있다. 백약이오름 억새를 배경으로 결혼을 앞둔 남녀가 웨딩 촬영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 '살아보라'엔 지나던 할머니가 '살아보라 벨치 안 헌다'고 읊는 구절이 따른다. 때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바램')란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 한 줄이 시인의 감성을 건드린다. '곡선은 돌아올 줄 안다', '가끔은 가벼운 게 더 좋다', '다 내려놓은 꽃' 등 시 구절에서 가려뽑은 소제목들은 그것만으로 시인의 마음이 읽힌다.

시집 말미엔 시인이 적은 '시와 함께 걸어온 길'이 실렸다. 그의 이력에 곁들여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글에서 시인의 삶이 곧 바다를 지향해온 여정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섬사람들에게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친화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그 넓고 퍼런 바다 앞에서 늘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기다렸고 기도했다"고 했다. 파우스트. 1만원. 진선희기자